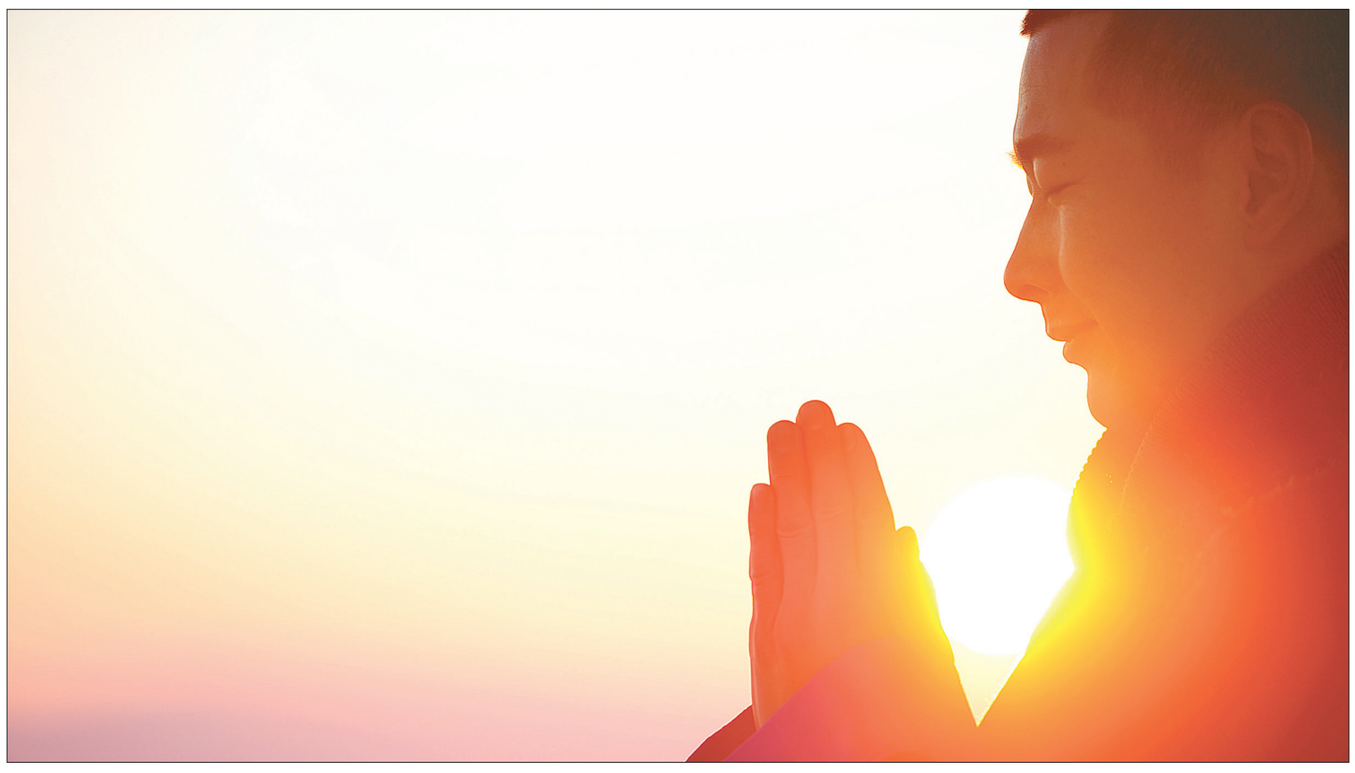
마음책 다시 읽기 부처님의 감정수업 굿바이, 분노

▶ 한줄 요약
성냄 속에 용서가 있고, 중생 속에 부처가 있다.

중생 사랑이 부처의 마음



중생을 사랑하는 마음

귀의(歸依)라는 표현은 불자에게 있어 시작과 끝을 꿰뚫는 행위입니다. 아기가 자라는 동안에 부모에게 의지하듯, 불자들은 처음엔 삼보에 의지해서 수행해야 합니다. 불자로서 삶을 시작할 때 '귀의'는 의자에 중심을 두어 '의지하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반면 불자로서 삶을 완성하는 순간의 '귀의'는 귀(歸) 자에 중심을 두어 '열반의 고향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귀의의 여정 중간에 불자는 보리심이라는 마음에 의지해서 다시 새롭게 보살로서 도약합니다. 부처님에게 보호받던 중생이 부처님의 일을 돕는 보살의 자화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보살은 무엇에 귀의할까요?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는 마음은 여전하지만, 보살은 중생에게도 귀의하게 됩니다. 중생이라는 존재가 없으면 보살은 할 일이 없어지고, 그렇게 보살의 일을 못 하면 더는 고귀한 목적을 추구할 수 없습니다.

모든 중생과 승자에 의해 불법을 성취하는 것은 같은데
승자이신 부처님은 존경하면서 중생은 왜 존중하지 않는가.
물론 목적은 같지 않지만
중생도 같은 결과인 성불로 인도하므로
공덕의 터전이라는 점에서
그들도 부처님과 동등하다네. [6:113-6:114]

세상의 모든 열매는 대지를 어머니로 삼습니다. 씨앗을 심을 대지 자체가 없으면 열매가 열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보살에게 중생은 대지의 역할을 하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미 열반의 길을 완성하신 부처님께서는 이 중생의 대지를 활용하는 성불 농사법을 안내해주셨으므로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대지와 올바른 농사법 중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사실 둘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보살이 존중함에 있어 부처님과 중생을 차별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문제입니다. 농사법을 알려주신 부처님과 대지와 같은 중생이 둘 다 똑같이 중요하다면 소중히 여기는 정도도 평등해야 합니다. 그러니 보살은 부처님을 존중하는 만큼 중생을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무한한 사랑을 갖고 있는 한
중생을 공경하는 데서 얻는 공덕은
중생의 위대함 때문이고
우리가 부처님을 믿는 데서 얻는 공덕은
부처님의 위대함 때문이라네. [6:115]

〈묘법연화경〉에는 다양한 유형의 보살이 등장하는데, 그중 상불경보살이라는 인물은 매우 특이합니다. 경전 속에는 이 보살의 일상이나 수행에 관한 내용이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오직 단 하나의 수행법만이 소개되는데, 그것은 모든 중생을 예외 없이 공경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중생은 이미 열반의 성품을 지닌 부처님임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중생을 바라볼 때 그들을 부처님이 아닌 중생으로 바라봅니다. 열반의 하늘을 가리고 있는 번뇌의 구름에 속아서 하늘이라는 존재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1년 내내 먹구름이 낀 세상에서 하늘의 존재를 믿는 사람은 매우 드물 것입니다. 이처럼 중생이 지닌 불성을 못 볼 때 상불경보살처럼 중생을 부처님과 똑같이 공경하는 수행을 실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보살은 중생을 통해 세상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중생은 개별적 존재이기도 하지만, 온 세상과 연결된 연기적 존재이며 세상의 일부입니다. 그러므로 중생 개개인을 대하는 행위는 세상 전체에 영향을 미치니, 보살은 그들을 보호하는 세상을 봐서라도 중생을 존중해야 합니다.

시선에 따라 달라지는 세상

그들은 둘 다 성불로 인도하므로
중생이 부처님과 같다고 하지만
실제로 부처님과 동등한 것은 아니니
부처님은 무한한 공덕의 바다이기 때문이라네.
그러나 무한한 공덕의 일부라도 어떤 중생에게 나타나면
삼계를 다 바쳐 공양해도 충분하지 않을 것이네. [6:116-6:117]

중생과 부처님은 다를까요? 부처님께서는 불안으로 바라보는 세상을 설명하실 때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중생이 보살되는 불교 사상
중생의 보살 부처가 연결돼
해악 대한 관대한 마음필요

"일체 모든 중생은 이미 완전한 부처님이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바라보는 세상입니다. 열반의 세계는 불완전한 것 없이 이미 완벽하고 아름다우며, 존경받아 마땅한 존재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중생의 눈에 이 세상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부족한 것이 많고, 부조리가 넘쳐납니다. 과연 누구의 주장이 진실인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무한한 허공과도 같은 공덕을 이미 완성하신 분입니다.

수박 씨앗은 아직 맛을 내지는 못하지만 수박의 잠재적인 면을 모두 갖고 있고, 일부는 그 맛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생도 이미 부처님의 무한한 공덕 중 일부를 현실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중생이 삶 속에서 자비로운 마음을 일으킨다면 보살은 그의 눈빛에서 관세음보살의 자비심을 엿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다와 같은 공덕을 이미 지닌 중생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고 배길 수 있을까요?

이 사랑스러운 중생은 미래에 부처님의 거룩함을 완전히 성취할 것이 예측됩니다. 이런 존재를 알아보는 눈 없이 어떻게 공덕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복전에 공양하는 것을 투자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삼보의 복전은 이미 완성된 투자처지만 중생이라는 복전은 앞으로 상승할 여력이 넘치는 초기 투자처입니다. 보살은 공덕 부자이신 부처님께서 보장하시는 중생이라는 복전에 공경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삼보에 귀의하는 마음은 불자의 생명입니다. 이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이제는 불자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보살의 생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중생에 대한 사랑입니다. 광대한 중생에게 최상의 행복을 선물하고 싶은 보리심은 바로 보살의 생명입니다. 이 마음이 없는 존재는 보살이라는 이름을 지닐 자격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이 이미 부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눈먼 사람의 주장과 눈뜬 사람의 주장이 서로 다르다면 당연히 눈뜬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신의 눈이 멀어서 진실이 인식되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열반의 하늘을 꿰뚫어 보는 것은 이처럼 보이지 않더라도 그 진실을 믿고 보기 위해 노력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보살의 생명은 중생의 복전에 대한 귀의입니다.

어려울 때 듣는 공덕

부처님께서는 이미 위대한 공덕을 완성하셨습니다. 중생은 종종 그 가능성을 보이기도 하지만, 아직 위대함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처님과 중생 중 누구에게 공양하는 것이 더 공덕이 클까요? 당연히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이 더 큽니다. 하지만 중생에게 공양하는 것도 만만치 않게 큰 공덕이 생기는데, 그것은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부처님께 공양 올리기는 쉽지만, 중생에게 그런 생각을 일으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부처님을 보면 누구나 존경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중생을 공경하기 위해서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저절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마음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큰 공덕이 됩니다.

둘째는 부처님께서는 이미 충분한 공양과 존경을 받으시는 공덕 부자입니다. 하지만 중생은 공양과 존경에 배고픈 존재입니다. 부자에게 만원을 보시하면 별다른 인상을 주지 못하지만 가난한 이에게 만원을 보시하면 도움이 됩니다. 그러므로 공양받는 이의 입장에서 중생에게 향하는 그 공덕은 큰 감사함을 일으킵니다.

셋째는 부처님께서는 이미 부처로서 완성되셨기에, 우리의 공경과 공양이 특별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중생은 여전히 갈 길이 멀었으므로 공양과 공경은 그의 일대사인연을 해결하는데 큰 디딤돌이 되어 그의 열반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중생은 부처님의 공덕 중에서 가장 좋은 면을 갖고 있으므로
우리가 중생을 공경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네. [6:118]

부처님과 중생은 열반을 완성했는지의 여부인 상구보리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하지만 다른 이의 열반을 돕는 하화중생의 측면에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살에게 열반의 농사법을 알려주셨고 중생은 열반의 농사를 지을 토양이 됩니다. 이 둘의 역할은 다르지만, 보살이 열반으로 나아가는 것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는 완전히 평등합니다.

부처님께서 사랑받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중생은 이익 있는 것을 사랑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만약 부처님께서 중생을 구제하지 않고 조용히 삶을 마치셨다면 과연 중생이 부처님을 사랑했을까요? 부처님은 두 가지 이유에서 부처라고 불립니다. 첫째는 열반의 꽃을 완전히 피우셨기 때문이고, 둘째는 그 방법을 중생에게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중생이 부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삶에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중생이 부처님의 공덕에서 가장 좋은 면을 지녔다는 것은 이 부분을 말합니다. 비록 중생은 열반을 완성한 공덕을 지니지는 못했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보살의 삶에 큰 이익을 줍니다. 기억나시나요? 중생, 그중에서도 나에게 해악을 끼치는 원수들은 미래에 겪을 고통을 감수하고 우리에게 용서를 실천할 기회를 마련해 줍니다.

중생이라는 복전은 이처럼 보살에게 큰 이익을 주지만, 그들은 여전히 도움에 목마른 상황입니다. 어려울 때 받은 도움은 큰 감동을 줍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이미 부자이신 부처님보다는 가난한 중생을 도와주는 건 어떨까요?

저자 : 원빈 스님 〈이층버스 펴냄〉

